

로보티즈 (108490)

코로나와 언택트 바람을 타고 로봇이 몰려오고 있다

2016년 이후 로봇 시장은 유통/서비스에서 가파른 성장세

전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로봇 산업 성장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1)로봇 가격의 하락, 2) 다양한 로봇의 출시, 3) 로봇 투자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세계 로봇산업 성장의 중심은 자동차/IT같은 전통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 및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대형 은행들이 충당금 설정액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100년 역사의 백화점들이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는 반대로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화 로봇 투자를 늘려 온라인 매출 성장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여행, 항공, 공항, 유통 분야에서 로봇 수요 시작될 것

LG전자는 900개 사무 일자리를 로봇 프로세스로 대체할 것을 최근 발표했다. LG전자에서는 로봇 프로세스 1대당 75명의 업무를 맡게 되며, 12개 전 계열사에 로봇 사원을 전면 도입할 것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CGV 극장에서는 로봇을 설치해 매장 직원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로봇 바리스타를 적용한 커피숍은 한국에서도 이미 2018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공항, 여행, 유통 및 일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갈 것이다. 여행, 항공, 유통 등의 분야는 발권 대행 및 사무관리 업무가 많아 로봇 시스템 및 업무 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원가 절감 효과를 단숨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0482?division=DAUM>

2022년부터 로보티즈의 무인배달 로봇 성장 기대

로보티즈는 핵심부품인 모터를 조달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작동기)를 조립 생산하는 업체이며 최근 배달 로봇 제작을 통해 매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배달 로봇의 핵심인 반도체는 NVIDIA에서 조달하고 있다. 강서구 마곡 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 말까지 배달 로봇의 시범 운영 및 모든 테스트를 마치게 되는 2022년부터 로보티즈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Special Focus

Not Rated

| CP(4월 22일): 9,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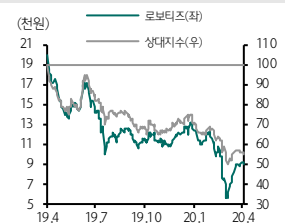
Key Data

| | |
|------------------|--------------------|
| KOSDAQ 지수 (pt) | 635.16 |
| 52주 최고/최저(원) | 18,800/5,850 |
| 시가총액(십억원) | 104.1 |
| 시가총액비중(%) | 0.04 |
| 발행주식수(천주) | 11,251.0 |
|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 89.8 |
|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 0.8 |
| 20년 배당금(예상, 원) | 0 |
| 20년 배당수익률(예상, %) | 0.00 |
| 외국인지분율(%) | 3.09 |
| 주요주주 지분율(%) | |
| 김병수 외 3인 | 43.71 |
| LG전자 | 8.55 |
| 주가상승률 | 1M 6M 12M |
| 절대 | 44.3 (20.6) (50.8) |
| 상대 | 6.3 (18.0) (41.0) |

Consensus Data

| | 2019 | 2020 |
|-----------|------|------|
| 매출액(십억원) | N/A | N/A |
| 영업이익(십억원) | N/A | N/A |
| 순이익(십억원) | N/A | N/A |
| EPS(원) | N/A | N/A |
| BPS(원) | N/A | N/A |

Stock Price



Financial Data

| 투자지표 | 단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매출액 | 십억원 | 0.0 | 0.0 | 0.0 | 24.3 | 25.2 |
| 영업이익 | 십억원 | 0.0 | 0.0 | 0.0 | 1.8 | 1.7 |
| 세전이익 | 십억원 | 0.0 | 0.0 | 0.0 | 2.2 | 2.4 |
| 순이익 | 십억원 | 0.0 | 0.0 | 0.0 | 2.4 | 2.5 |
| EPS | 원 | 0 | 0 | 0 | 241 | 221 |
| 증감률 | % | N/A | N/A | N/A | N/A | (8.3) |
| PER | 배 | N/A | N/A | N/A | 71.36 | 56.01 |
| PBR | 배 | N/A | N/A | N/A | 3.15 | 2.18 |
| EV/EBITDA | 배 | N/A | N/A | N/A | 61.70 | 32.39 |
| ROE | % | N/A | N/A | N/A | 7.71 | 4.05 |
| BPS | 원 | 0 | 0 | 0 | 5,467 | 5,692 |
| DPS | 원 | 0 | 0 | 0 | 0 | 0 |



Analyst 박무현

02-3771-7771

bossniceshot@hanafn.com

월마트의 차별적 주가 상승세의 배경은 로봇 투자 확대를 통한 온라인 매출 성장

높은 온라인 매출 성장의 배경은
로봇 투자 확대이며
월마트 주가는 차별적 상승

이런 흐름은 전세계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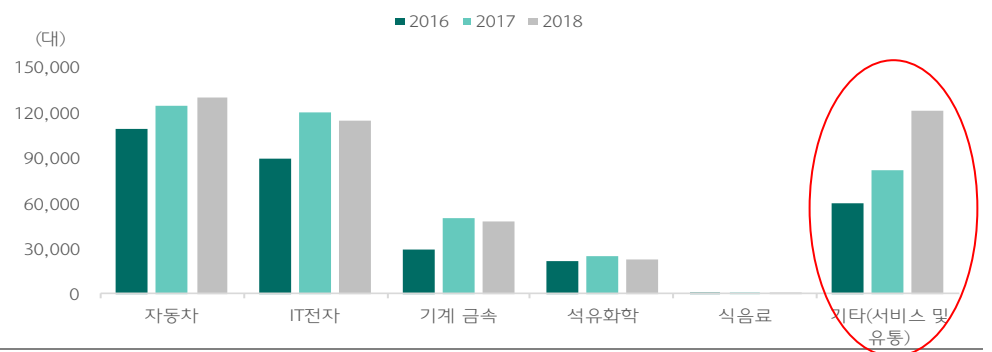
로보티즈의 무인 배달 로봇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성장 폭을 높게 될 것으로 예상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들이 쓰러져가고 있다. The Economist 최근 기사에 의하면 실업 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대출 연체 증가로 월 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1분기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을 급격히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마트 체인 월마트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로봇 투자를 늘림으로써 온라인 판매 성장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행, 항공, 공항, 유통 분야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다. 로보티즈는 이런 흐름에 맞춰 무인 배달 로봇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을 시작으로 이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티즈는 지난해 매출액 252억원과 영업이익률 6.7%를 달성했으며 2020년 매출 계획은 300억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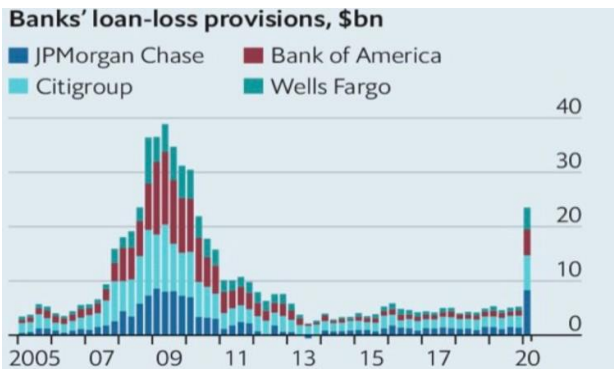
그림 1. 2016년 이후 서비스 및 유통 분야에서 자동화 로봇 수요가 높았다



자료: World robotics 하나금융투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운동 등은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화 로봇 투자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

그림 2. 월가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대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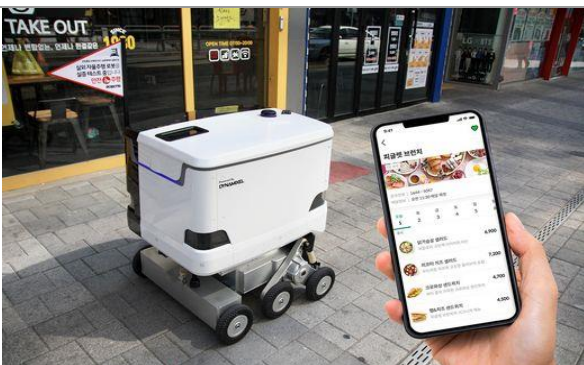
자료: The Economist,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온라인 매출 성장과 로봇 도입으로 월마트 주가는 상승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4. 인도에서 시범 운행 중인 로보티즈의 무인 배달 로봇



자료: 언론 정보, 하나금융투자

그림 5. 국내에 도입된 로봇 바리스타



자료: 언론 정보 하나금융투자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로보티즈



| 날짜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 |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투자등급 | BUY(매수) | Neutral(중립) | Reduce(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 91.3% | 8.7% | 0.0% | 100.0% |

* 기준일: 2020년 4월 22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무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4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무현)는 2020년 4월 23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